

1. 시편을 펼쳐보면, 그 처음부터가 “**복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지요.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대로 하자면 이건, “복이 있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에 대답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지요. “**악한 일을 행치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순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팔복도 보면, “**복 있는 자들은…**”이라고 시작하지요. 물론 우리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ὶ” 즉, “복이 있다~! 저 사람들이”, 이런 순서입니다. 시편 1편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3.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시편 1편이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복있는 자가 신약 마태복음 팔복에서의 그 복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악한 일을 행치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이 타당한 것은, 이 시편과 팔복을 같은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4. 오늘 읽은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곧 팔복에서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지요? 또, 시편 1편의 그 “악한 일을 행치 않는 자”일 것입니다.
5.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73편이나, 팔복이나, 그 말하는 순서마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①하나님이 참으로 ②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③선을 행하신다!” 이때, 그 원래 순서는 “③참으로 선하시구나 ②이스라엘에게 ①하나님이!”입니다. 잘 번역해보자면, “참 복되구나 너 이스라엘아!”입니다.
6.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가리키고, 또 그 마음이 정결한 자는 악한 일을 행치 않는 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그 복된 자가 곧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복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러나 이 순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복되다는 것일까요? 악한 일을 행치 않아서? 아니면 마음이 정결해서? 그들이 심령이 가난했는가? 그게 아니지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렇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8. 시편 73편을 기록한 저자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삽의 시이니까, 그가 실족할 뻔 한 것입니다. 그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중에 박자를 놓칠뻔 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 복되다는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자태 때문인 것입니다.
9.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복있는 자의 몫이겠지요? 그런데 그 복있다는 자가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상이라는 말이지요. 그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은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고 말았지요.
10. 여기서 아삽의 마음에, 복된 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있는 자가 형통해야 할텐데…. 죽을 때에 고통이 없어야 하는 건 의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말을 오히려 악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강건하다가 모세처럼 죽어야 하는데, 오만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11.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관찰하는 세상은 참 부조리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성도가 바라보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옛 이스라엘 역사에 빗대어 보자면, 홍수가 끝났는데도 네필림은 여전하고, 출애굽을 해서 보니, 가나안 땅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12.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재앙도 없지요. 그래서 12절,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기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즉 교회에서!
13. 그 뿐이겠습니까?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했습니다. 악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악인들의 권세가 교회 전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문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자들의 논리가 더욱 힘을 얻지요. 당연히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14. 다시 한 번 주지시키지만, 이 시편이 그냥 일반 세상을 보고 지은 시가 아닌 것입니다. 아삽의 시, 성가대 지휘자로서 지은 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의 땅, 곧 교회에서 노래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권 마치, 아버지 이삭이 집안에서 야곱에게 내리는 축복송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창 27:27).”**
15. 그런데 그 밭의 향취 속에서 아삽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취라는 것이지요. 거름 냄새! 이권 저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저 악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햇볕을 가라지와 알곡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16. 우리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땅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속되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사촌이 형통하면, 무엇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일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17.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약 60만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 153마리라는 것은, 그물을 물 가로 끌어 낸 다음에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았을 때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60만명이란, 이스라엘과 함께 한 중대한 잡족과, 그들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라는 것입니다.
18. 그 60만이 다 죽고, 다시 40년 만에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거기서 그들은 땅을 분배하고, 각기 기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비유하자면, 그들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광야교회였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삽이 무얼 본 것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이지요.
19. 왜? 네필림이 다시 생기고, 아낙 자손도 그대로 있고, 또 자기 민족이 아닌 중대한 잡족이 땅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악인이 더 형통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만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맞냐?는 소리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냐?라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20. 아마 이러한 아삽의 불만은 그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꼴을 보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것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권선징악하셔야 하고, 하나님이라면 악인의 형통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이라면 나와 내 형제의 불행에 눈을 감으면 안된다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21. 그런데 이런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되묻는 것! 그건 마치 약자의 부르짖음처럼 들리겠지만, 그 소리는 하나님을 내 기준에 가두려는 가장 큰 도발이 되는 것입니다.

22. 17절, 아삽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23.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이스라엘 무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팔을 마치 그물처럼 펼치시고, 이스라엘과 또 그들과 함께한 중대한 잡족까지 다 몰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그 가라지가 더 형통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24.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그물은 곧 물가로 끌어 올려져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때가 되어서 가라지는 아궁이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25. 이것을 아삽이 이 시를 지은 시점에서 생각하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유수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심판이 있음과 그것이 가까움을 노래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6.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또 마치 복없는 자처럼 지내게 하셔도, 그것을 마치 꿈처럼 멸시하시는 분이시지요. 일장춘몽인 것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우리 앞에서 악인이 비록 성하여도,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도, 최후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27.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삽은 그 그물에 남겠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끌어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알려겠다는 소립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계 14:12).